한국불교대표단 訪日, 빈손외교 '허탈'

일본불교계, 韓 공동성명 제안 검토 중 입장 바꿔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일 양국 갈등상황 타개를 위해 한국과 일본불교계가 추진하던 공동성명이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불교계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불교 관계자들과 긍정적인 논의를 주고받으면서 탄력 받던 공동성명은 일본불교계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로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일본 측이 먼저 제안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을 위한 회의 테이블만 마련돼 한국대표단의 방일이 무리한 빈손외교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에 따르면 한국대표단은 지난 9월 6~8일 일본을 방문,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을 비롯한 일본불교 주요 인사를 만나 경색된 양국 관계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대표단에는 종단협 부회장 홍파 스님을 비롯해 사무총장 지민 스님, 상임이사 덕조 스님, 한일불교협 사무총장 향운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언론보도에 일본 측 반발

한국대표단은 방일을 마친 뒤 "한국과 일본불교계가 지난 40년간 이어온 우호 교류를 기반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9월 20일까지 일본 측과 공동성명을 검토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불교계는 일본불교계가 2009년 여주 신륵사에 건립한 '과거사참회비'에 담긴 문구를 기반으로 한 공동성명 채택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공동성명 추진에 대한 국내 종합언론의 일본어판 보도를 접한 뒤 입장을 바꿨다. "한국불교가 일본불교를 이용해 공동성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일본불교계는 "해당 보도에 명시된 9월 20일 공동성명 발표는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발하며 불만을 표했다.

한국불교계는 전후사정을 일본 측에 설명했으나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결국 공동성명 무산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한국불교계는 단독성명 발표도 고민했으나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 성명 발표 계획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초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후지타 류조 스님(사진 가운데)과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한국불교대표단. 당시 일본불교계는 한국대표단이 제안한 공동성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양국불교 공동성명 끝내 무산
일본 제안 '유해봉환'은 추진
10월 15일 서울에서 첫 회의
"남 좋은 일 하게 된 일본방문"

반면 전일본불교회가 지난 5월 공문을 통해 한국에 제안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 사업인 '구(舊)민간 징용자 유골봉환'은 10월 15일 서울서 첫 실무회의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이 추진한 공동성명은 무산된 채 일본서 제안한 사업만 다루게 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은 그간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일본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올해 양국 관계가 틀어지면서 일본불교계가 갑자기 한국불교계에 유해봉환을 제안해오자 민간을 통해 유해를 떠넘기려 한다는 의구심까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유족들에 대한 배상판결 등 국제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일본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유해봉환 논의 신중해야"

이와 함께 유해봉환 활동을 펼쳐온 민간단체와 강제징용 희생자 유족회도 한일불교계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불교계 대화는 의미 있지만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유족의 입장 반영, 정부 간의 조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봉환추진위원회 윤승길 사무총장은 "유해봉환은 희생자와 유족 중심으로 풀려야 한다. 종교계 활동은 의미 있지만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사과 없이 유해를 가져오면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또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 민간단체와 협의해 민감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양순임 중앙회장은 "유해문제는 유족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일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나서서 애도하고 사과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면서 "유족들이 힘이 없다고 민간단체와 종교계 중심으로만 문제를 풀어가선 안 된다. 정부예산 받아다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데 정작 유족과는 한마디 상의 없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회는 8월 27일 "공동성명을 일본에 먼저 제안한 뒤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일본을 방문하고, 유해봉환 논의는 이번에 제외한다"고 회의결과를 정리했다. 그럼에도 종단협 회장단 일부가 상임이사회 결과를 뒤집고, 성과 도출을 위해 대표단을 급파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득은 얻지 못하게 됐다.

이 같은 결과에 상임이사회의에 참석한 한 스님은 "상임이사회 결과를 회장단이 번복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제안한 건 무산되고, 상대방이 제안한 것만 추진하게 되면 성과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엄수된 활안 대종사 다비식에는 송광사 문도스님들과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30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조계종 명예원로 활안 스님 다비식

순천 송광사 연화대에서 9월 21일 엄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신광당(神光堂) 활안대종사(活眼大宗師) 다비식이 지난 9월 21일 순천 송광사 연화대에서 엄수됐다. 50여 년간 주석한 천자암에서 연화대로 이운한 활안 스님 법구는 사부대중의 장엄염불 속에 거화와 함께 피안의 세계로 떠났다.

다비식에는 송광사 문도인 현고 스님, 영조 스님, 현봉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주지 진화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조계산 호랑이'로 불린 활안 스님은 지난 9월 18일 세수 94세 법납 67세로 입적했다.

활안스님 49재는 9월 24일 초재를 시작으로 녹야원(이천), 지장대사(여수), 고불암(합천), 서원사(창원), 보현사(경기 광주)에 이어 11월 5일 천자암에서 막재를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달력 의혹, 사실관계 확인 없는 흠집내기"

조계종 도반HC, VIP달력사업 관련 기자회견

불교계 일부 시민단체가 9월 17일 조계종출판사 前대표인 자승 스님과 前사장 김모 씨를 상대로 국고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가운데, 조계종 측이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출판사가 소속된 ㈜도반HC(사장 주혜)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9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된 의혹은 허위이자 의도적인 자료조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불교계 일부 시민단체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2012년 VIP용 달력 2000부 제작을 1억 원에 계약했지만, 문화사업단에는 500부만 납품하고 1500부는 자승 스님이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반HC 사장 주혜 스님은 "2012년 5월경 조계종출판사는 당시 종단 현안이었던 승려노후복지기금에 기탁할 목적으로 전문달력업체와 판매용 3000부 제작을 계약, 조계종출판사 회계와는 별개로 VIP달력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제기된 2000부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홍보를 위해 계약한 별도의 사업이라는 점을 짚었다. 따라서 당시 제작된 달력은

국고보조 달력, 목적대로 사용
판매 달력은 출판사 별개 사업
관련자료 모두 검찰 제출 예정

시민단체는 조계종 자료 요청
국고횡령 근거는 공개 안 해

총 5000부로, 이 중 3000부는 공공목적기금 확보를 위한 판매용, 2000부는 템플스테이 홍보용으로 사용됐다는 게 도반HC 설명이다. 도반HC에 따르면 2000부 중 절반은 발송대행업체를 통해 템플스테이 관련 주요 관계자 등에게 DM발송하고, 나머지를 문화사업단에 납품했다. 또한 문화사업단에 납품된 1000부 역시 444부는 관계자들에게 DM발송 후 나머지는 방문 내빈용, 온오프라인 이벤트용 등으로 사용됐다.

주혜 스님은 "고발행위 당사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전혀 다른 두 건의 달력제작을 하나로 엮어 자료를 가공하거나 조작, 국고보조금 횡령이라는 황당한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도반HC는 시민단체 측 보도자료에 서로 다른 2개의 달력이 자료사진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실제 자료사진 중 하나는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전면에 병기돼 있으며, 다른 사진에는 '대한불교조계종'만 적혀 있다. 즉 판매용 달력과 홍보용 달력을 같은 것으로 혼용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주혜 스님은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을 임의로 빼돌리거나 판매해 국고를 편취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본래 목적과 같은 홍보용으로 적법하게 배포됐다"면서 "일부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종단을 음해해온 전례를 볼 때 비방의 목적이 아니고는 의혹제기의 배경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반HC와 문화사업단은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언론에 보도될 경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하더라고 그 과정에서 입는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자료는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사를 통해 날조된 허위사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9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판매용 달력 견적서와 계약서, 제작비 내역 등의 자료 공개를 조계종에 요청했다. 하지만 자승 스님과 전 임사장이 국고를 횡령했다는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남겼다.

이들 단체는 "달력 500부만 납품되고, 1500부는 배포가 아닌 판매라고 보고 있다. 자세한 것은 검찰이 밝힐 것"이라며 조계종의 답변을 보고 추가적인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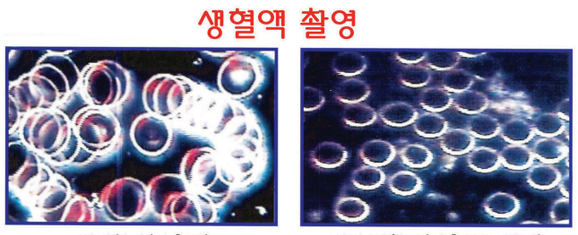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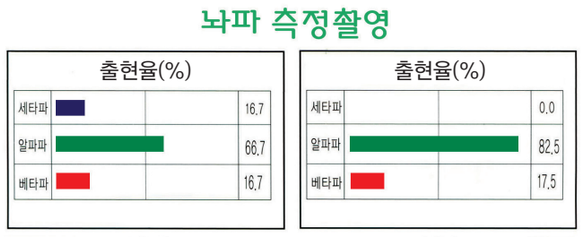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사용전

발모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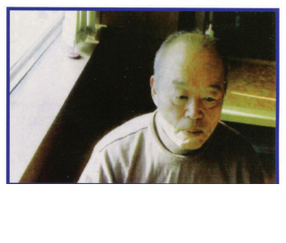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